2026년 3월 9일 | Global Asset Research

Quant Comment

국내외 주간 이익 동향 체크

Quant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글로벌 이익 동향 및 실적추정치 상, 하향 종목

미국 빅테크의 지속되는 어닝 서프라이즈로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미국 이익 급증. 게다가 유가 등 인플레이션 우려로 미국 에너지(원유 등) 이익 급증 관찰. 금융 섹터도 금리 상승 우려로 인한 NIM 개선, 안전선호의 보험업종 실적 상향 등 영향으로 실적 상향. 소재 업종은 실적은 급증했지만 안전자산 선호 및 경기 위축 등의 우려로 원자재 가격 하락 등 반영하며 주가는 급락세. 반면, 중국의 이익 급락세 뚜렷, 특히 IT 섹터는 물류 및 에너지 급등, 항로 불확실성으로 공급망 비용 상승,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중국 완제품 수출 전망 우려 등이 반영. 중국의 산업재 역시 이익 급락세, 유가 급등으로 마진 압박, 설비투자 지연 등의 우려 반영 중

그 밖 실적 상향 기업들은 **브로드컴**: 2026년 1분기 실적이 월가 예상치를 상회하며, 맞춤형 AI 칩(ASIC)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가 증명

마벨테크놀로지: 데이터 센터 부문의 강력한 성장세(전분기 대비 9% 성장)에 힘입어 변곡점에 진입했다는 평가와 함께 목표 주가가 상향

마라톤페트롤리엄, 발레로에너지, 코노코필립스: 업스트림 기업의 직접적 이익 상향 및 정유사들의 정제 마진 개선 효과

글로벌 이익 상향 업종은 **상사**(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 경직, 원자재 등의 재고 가치 상승 반영 등), **에너지**(유가 급등의 직접적 수혜), **반도체**(전쟁 무관, AI 가속기 및 HBM 주문 지속, 경기변동보다는 기술 패권 논리), **금속광물**(원자재 가격 상승 반영, 다만 위험선호 현상 약화로 지수는 급락)

하향 업종은 **운송인프라**(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운영 비용 상승, 물류 경로 제한 등), **식료품**(인플레이션 우려), **통신장비**(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각국의 인프라 투자 지연 우려), **바이오**(고금리 및 안전선호 현상 등)

실적 추정치 상향 주요 종목은 엔비디아, 브로드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도요타, 알리바바, AMD, 머크, 램리서치, 인텔, GE버노바, 보잉, 토탈에너지스, 앱러빈, 디어, 아날로그디바이스, 코노코필립스, 롤스로이스, 소프트뱅크, 뉴몬트, CME, 크라우드스트라이크, 델타일렉트로닉스, 사노피, BP, 델, 마벨테크놀로지, 도어대쉬, 킨더모건 등

하향 주요 종목은 버크셔해서웨이, 텐센트, 오라클, 로슈, 티모바일, IBM, 쇼피파이, 사프란, 화이자, 알리안츠, 유니레버, 프롤로지스, 프로그레시브, 브리스톨마이어스큅, 인터랙티브브로커, 샤오미, 아그니코이글마인스, 유크에너지, 제네럴다이내믹스, 메르카도리브레, 아메리칸타워 등

Analyst 이경수 gang@hanafn.com
RA 이철현 lch2678@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증시 이익 동향, 실적추정치 상하향 종목, 수급

코스피 1Q26F OP는 130조원 (1W +0.4%, 1M +9.1%, QoQ +58%). **2026E OP**는 616조원 (1W +1.1%, 1M +6.7%, YoY +104%), 실적 상향 다소 둔화. **1Q26F OP 상향 업종**은 항공, 호텔레저, 증권, 비철금속, 해운, 건강관리장비, 반도체, 섬유의복, 전기장비. **하향 업종**은 화학, 건설, 건자재, 기계, 정유, 게임엔터, 제약바이오, 기술하드웨어, 통신, 음식료

국내 대형주 리비전 특징주(1Q26F OP)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생명, 고려아연, 미래에셋증권, 카카오, SK이노베이션, HMM, 현대건설, LIG넥스원 상향. 두산에너빌리티, HD한국조선해양, SK,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LG, 삼성에피스홀딩스, DB손해보험 하향

1Q26F OP 상향 주요 종목은 로보티즈, 엘앤에프, 미래에셋증권, HMM, LS, 한국금융지주, HJ중공업, 현대건설, 한전기술, 한국카본, LIG넥스원, 대신증권, 대우건설, 대한항공, BNK금융지주, NH투자증권, 카카오, 삼성생명, 현대지에프홀딩스, 에이피알, 삼성증권, CJ대한통운, 일진전기, 고려아연, ISC,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삼성전자, JB금융지주, 씨에스윈드, HD현대, 피에스케이, 키움증권

외국인은 반도체 매도 집중, 고배당, 대형주 매도세, 코스닥은 강한 매수세. 외국인 순매수는 코스피 -7조원, 코스닥 +2.2조원. **외국인 순매수 상위 업종**은 기술하드웨어, 유통, 항공, 건자재, 건설. **순매도 상위 업종**은 반도체, 정유, 방산, 해운, 자동차

연기금은 중형주 및 가치주 매도, 코스닥 순매수. 연기금 순매수는 코스피 -2,900억원, 코스닥 +2,600억원. **연기금 순매수 상위 업종**은 비철금속, 철강, 상사, 해운, 호텔레저. **순매도 상위 업종**은 유틸리티, 상호미디어, 건자재, 건설, 항공

금주 주요 일정 (경제지표 / 실적발표)

3.9일(월)

중국 CPI 및 PPI / -

10일(화)

미국 NFIB 소기업낙관지수 / 오라클, HPE

11일(수)

미국 CPI, 원유재고 / 달러 제너럴, 캠벨수프

12일(목)

미국 PPI,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 어도비, 얼타뷰티

13일(금)

미국 수출입물가지수,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 -

Quant Comment

중동 리스크 심리는 오히려 점증하며 VIX 지수 지난 주말에만 +24% 상승, 지난 주에는 +48% 상승(브렌트유 지난 주말에만 +8.9%로 93달러 수준)

미국과 중국의 실적 모멘텀의 엇갈림이 특징, 미국은 에너지 및 금융, 반도체 위주로 이익 상향폭 점증, 중국은 IT 및 산업재 위주로 원가 우려 등이 직접적으로 악재로 작용

유독 한국 반도체에만 집중되는 외국인 매도세, EWY의 반도체 비중 제한과 연관 높아 보여,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비중 합은 50% 미만이지만 근접할수록 기계적인 매도세, 삼성전자의 25% 룰 역시 근접할수록 매도세, 결국 반도체 상승세 제한될수록 외인 수급 되돌림 가능성 높아

그 외 안전선호 부각 지속으로 외인 매도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상대적으로 코스닥 및 반도체 외 업종, 디펜시브 등의 상대적 강세가 부각될 것

개인 수급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코스닥이 오히려 아웃퍼폼 가능성이 높은 상황, 개인들의 ETF 매수세는 여전히 진행 중